

문학관/문학공간의 활성화 방안과 콘텐츠 기획의 사례 연구*

—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이승윤**

1. 작가와 작품을 기억하는 방법
2. 원체험의 공간, 명정리에서 미륵산까지
3. 자발적 소외와 글쓰기의 공간
4. OSMU, 소설이 집을 짓다
5. 결론을 대신하여: 'Pak kyongni'가 'Bak Gyeongri'가 된 사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작가 박경리와 『토지』에 관련된 여러 문학관/문학 공간을 대상으로 각각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문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레 대중의 문화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으며 문학의 생산과 소비, 유통 등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다양한 문학 관련 공간의 창출 역시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관/문학공간의 콘텐츠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 이 논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대중서사학회와 토지학회, 여성문학학회, 숙대 아시아 여성연구원, 중국 길림대학교 외국어학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 학술대회 (중국 길림대학교, 2018년 7월 17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객원교수.

서울과 원주, 하동, 통영에 박경리 『토지』와 관련한 각각의 특징적인 문학공간이 있다. 한편으로는 동어 반복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거나 명백한 오류가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곳도 있다. 문학관은 보기 좋게 박제된 관상물(觀賞物)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생물이다. 문학관은 원소스(One source)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거점으로 문학연구와 교육, 전시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가 박경리와 『토지』처럼 문학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간의 역할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문학 공간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도 절실하다. 전문 인력의 부재는 결국 문학관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학 작품의 재현, 작가 정신의 계승, 강좌의 개발, 방문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전시 기획과 체험 활동 등은 해당 문학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학관/문학공간을 기획하고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만은 아니다. 그것은 건축과 디자인, 콘텐츠를 담당하고 기획하는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자체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박경리, 『토지』, 문학관/문학공간, 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지방자치단체, 소통과 협업)

1. 작가와 작품을 기억하는 방법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다가서고, 독자는 작품을 통해 작가와 만난다. “훌륭한 작품이 반드시 작가의 인격적 소산”¹⁾은 아닐지라도 독자는 읽는 행위를 통해 작품 뒤에 숨어 있는 작가를 상상한다. 그러나 문학을 향유하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방식인 종이책은 이제 더 이상 작가와 작품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디지털미디어의 발달은 책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문학의 유통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레 대중의 문화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으며 문학의 생산과 소비, 유통 등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한 지식과 정보 중심의 경제발전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경제’의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경제를 선도할 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TF 팀을 운영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각 고장의 특성을 살린 지역 문화축제의 개최와 ‘문학관’과 작가의 ‘기념관’과 같은 새로운 공간의 창출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화와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한국문학관협회’에 가입해 있는 전국의 문학관은 74개에 달한다.³⁾ 이

1) <『토지』 완간 10주년 기념 대담>, 마산 MBC, 2004.

2) 이종엽,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6, 2003, 84쪽.

3) ‘한국문학관협회’는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2004년 4월 ‘전국문학관협회’로 출발한 비영리 단체이다. 협회의 목적은 “문학관 간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 도모와 연합 문학행사 개최, 정보 교류 및 기획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문학체험 및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문학 향수 기회를 넓히고, 프로그램 상호 공유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문학관

는 협회에 등록된 문학관만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문학관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고의 대상인 박경리 『토지』와 관련한 문학 공간은 원주의 박경리문학공원 내의 '박경리문학의 집'과 '토지문화관', 경남 하동의 '박경리문학관', 경남 통영의 '박경리기념관' 네 곳이다. 하지만 이 중 협회에 등록된 곳은 원주의 '박경리문학공원'과 '토지문화관' 두 곳뿐이다.⁴⁾

사실 '문학관'을 통합 관리하는 문학관협회가 운영 중에 있고, 전국에 '문학관'이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문학관에 대한 개념이나 역할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⁵⁾ 이는 문학관의 기능이나 역할이 매우 다양하며 또한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문학관은 문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운영 인력 양성,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사이버 문학관 운영, 문인들의 창작실 운영, 문학창작교실을 통한 문학교육의 확대, 청소년 문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의 장으로 운영, 문학관 발전을 통한 시민과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활동을 지원"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http://www.munhakwan.com> 참조(최종 검색일 2018.10.10).

4) 문학관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테마파크와 문화산업 관련 연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후 지역의 문학관과 로컬리티 관련 여러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박경리문학관과 관련해서는 문재원의 연구가 주목할만하다. 문재원은 이 연구에서 원주, 하동, 통영의 문학관이 작가와 작품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으며 그것이 로컬리티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고찰하고 있다. 문재원, 『지역 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 36, 2013 참조.

5) 일본이 문학관의 영문명을 대부분 'museum'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무숙 문학관은 'house', 김유정문학촌은 'house of literature', 이효석문학관은 'memorial hall', 이원수문학관은 'literary gallery'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영문 표기는 문학관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학관에 대한 일치된 개념이나 정의가 없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함태영, 『문학관의 현황 및 인천문화재단이 만드는 한국근대문학관』, 『민족문학사연구』 47, 2011, 330쪽.

문학에 대한 교양 습득은 물론,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의 역할도 담당한다. 규모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특징과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통칭하여 ‘문학관’이라고 부르는 듯하다. 결국 문학관은 문학과 관련한 모든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⁶⁾

‘문학관’이라 하면 시인이나 소설가 혹은 그들의 작품과 관련한 공간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문학관을 살펴보면 꼭 그러한 공간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특정 문학 장르에 집중하여 특화한 ‘추리문학관’, ‘시조문학관’, ‘한국가사문학관’, ‘한국현대시문학관’이나 ‘문학공원’, ‘출판박물관’, ‘만해마을’,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제주 문학의 집’ 등도 문학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문학 관련 공간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호칭에 걸맞은 특징과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학관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할까. 이 글은 작가 박경리와 『토지』에 관련된 여러 문학 공간을 대상으로 각각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공간의 기획과 콘텐츠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6) 본고에서 사용하는 ‘문학관/문학공간’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로 ‘문학과 관련한 모든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칭한다. 박경리의 『토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작가의 기념관과 문학관, 문화관, 문학공원, 추모공원, 집필실을 포함한 옛집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원체험의 공간, 명정리에서 미륵산까지

통영은 박경리의 고향이자 현재 작가의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작가의 사후 2년 뒤인 2010년 개관한 '박경리기념관'은 통영 미륵산 작가의 묘소가 있는 '박경리 추모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추모공원에서는 매년 5월 5일 작가의 기일(忌日)에 통영시에서 주관하는 제(祭)를 올린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추모공원의 행사인 셈이다. 이날은 주로 지역 문인들과 유가족, 작가의 애독자들이 참여한다.

추모공원은 미륵산 기슭에 있는 작가의 묘소를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관에서 묘소로 올라가는 구비 길에는 네 개의 박경리 시비와 하나의 어록비⁷⁾가 바위에 새겨져 있고, 중간마다 쉬어 갈 수 있는 벤치와 정자 등이 마련되어 있다. 추모공원 내에 자리한 '박경리기념관'은 사무 공간을 제외하면 영상실과 자료실을 포함한 전시실과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다. 다목적실은 세미나나 강연 등이 가능한 공간이지만 작가와 관련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박경리기념관' 측은 설립 목적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여 밝히고 있다.

- 박경리 선생의 고향 통영을 배경으로 한 소설 '김약국의 딸들'을 통하여 한 가족의 몰락 과정을 다루며, 이 작품은 작가의 작품 세계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었으며,
-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여 4대에 걸친 인물들을 통해 민중의 삶과 한(恨)을 새로이 부각시킴으로써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작

7) 시비에 새겨진 시는 「사마천」, 「옛날의 그 집」, 「눈 먼 말」, 「우주 만상 속의 당신」 네 편이다. 한편 홈페이지에는 '어록비'라고 소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작가의 에세이 「마지막 산문」에서 뽑은 한 구절이 새겨져 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상업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문학은 결코 상업이 될 수 없습니다. 문학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컵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 박경리를 기념하고,

- 박경리 선생의 고향으로 선생 문학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한 고향 통영을 소개함으로써 선생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건립함.⁸⁾

요컨대 설립 목적의 첫 번째는 ‘통영’을 배경으로 한 소설 『김약국의 딸들』을 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를 기념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작가의 고향 ‘통영’을 소개하는 것이다. ‘문학관’이란 간판 대신 작가의 ‘기념관’을 내세운 것은 통영이 박경리의 고향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통영의 작가 박경리’를 부각하기 위한 네이밍(naming)인 셈이다. 그래서 설립 목적의 맨 앞에는 『토지』가 아니라 ‘작가의 고향 통영을 배경으로 한 작품 『김약국의 딸들』이 배치된다. 『토지』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토지』를 쓴 ‘통영의 작가 박경리를 기념하고, 작가의 고향인 “통영을 소개함으로써” 박경리 문학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이다.

통영시의 홈페이지 대문에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 ‘예향의 도시’임을 표나게 내세우고 있다. 통영은 박경리뿐 아니라 많은 문화 예술인들을 배출한 고장이다. 이들과 관련된 ‘청마문학관’, ‘김춘수 유품전시관’, ‘전혁림 미술관’, ‘윤이상기념공원’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이름을 딴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관련 축제와 이벤트도 연중 열린다.⁹⁾ 통영시는 지역 출신 예술인들에 대한 생가 복원

8) 박경리기념관 홈페이지(<http://pkn.tongyeong.go.kr> 최종 검색일 2018.9.30.)

9) 통영시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통영 관광 포털’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통영예술제’,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통영 한산대첩 축제’ 등 통영에서 연중 행해지는 공식 축제는 9개에 이른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곳에 모두 다섯 코스의 ‘역사 문화 투어’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명 예술인 생가 투어’이다. 여기에는 박경리를 비롯하여 유치환, 김춘수, 윤이상, 전혁림 등의 생가터와 관련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동선(動線)이 소개되어 있다. U 투어, 통영 관광 포털 홈페이지(<http://www.utour.go.kr> 최종 검색일 2018.10.2.)

과 묘소 정비도 다른 고장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통영시로 통합되기 이전 행정구역상으로 '충무 명정리'가 고향이었던 작가의 생가는 서문고개 근처이다. 『김약국의 딸들』의 육필원고가 새겨진 표지석이 생가 골목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그야말로 통영은 작가의 원체험의 공간이다. 『김약국의 딸들』 뿐 아니라 초기 단편과 『파시』, 『애가』 등의 다른 장편소설, 그리고 『토지』에서도 통영은 주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박경리기념관'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김약국의 딸들』과 관련된 전시물이다. 『김약국의 딸들』의 여러 판본과 영화 포스터, 육필원고가 전시되어 있으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약국의 딸들』 배경 연출이란 타이틀 아래 작품의 배경이 되는 통영 일대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의 통영을 형상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념관의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관 속에 박제된 옛 통영의 모습은 작품 이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양중맞은 초가집은 눈에 띄지만 그것이 고증을 거쳐 온전히 복원한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기념관 내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들였을 것이 분명한 '통영 미니어처'는 사실 '통영시 박물관'에 어울리는 조형물이지 작가의 기념관에는 생뚱맞다. 신도시 개발 현장에나 어울릴 듯한 미니어처 대신 차라리 작품의 배경



이 되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통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그렇게 이미지의 생산 연도와 작품과의 관련성을 설명해주는 것이 오히려 작가의

기념관을 찾은 독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많은 사업을 벌일 것이며 그중에는 지역 공간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다. 권위와 지배를 벗어나 기획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공간에 대한 콘셉트의 설정이 우선이다.

3. 자발적 소외와 글쓰기의 공간

원주는 1980년대부터 말년까지 작가가 글쓰기에 몰두했던 집필의 공간이다. 1969년 시작한 『토지』를 완성 지은 공간이면서, 한편으로 작가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작가집필실이 있는 ‘토지문화관’이 있는 공간이다.

사실 박경리도 80년대 초반 원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원주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 원주로 이사하고 나서도 원주시의 구성원으로서 작가 박경리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냉정하리만큼 세상과 담을 쌓고 오로지 『토지』의 집필에 집중하였다. 1994년 『토지』가 완성된 후 비로소 박경리는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보면 원주는 작가 생전에 글쓰기에 집중했던 공간이고, 후배 작가들을 위해 ‘토지문화관’을 설립하면서 그들의 창작을 지원하였던 ‘글쓰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통영은 여러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 도시이고 그들과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이 즐비하다. 상대적으로 원주는 콘텐츠가 빈약한 편이다. 원주시 문화관광과 홈페이지에 가봐도 내세우는 것은 원주 8경, 소금산 출렁다리, 레일파크, 맛집 소개 등으로 채워져 있다. 문학 예술과 관련해서

는 ‘박경리문학공원’이 유일하다. 통영이 시인, 소설가, 화가, 작곡가 등 여러 장르의 대표 선수들을 보유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원주는 박경리 혼자서 맞서는 형국이다.¹⁰⁾ 선택과 집중의 효과랄까.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로 작가 박경리와 『토지』 관련 콘텐츠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주이다.

원주에는 ‘토지문화관’ 외에도 ‘박경리문학공원’, 공원 내에 작가가 『토지』를 완성지를 때까지 생활과 집필을 했던 ‘옛집’, 그리고 문학관 형태의 ‘박경리의 집’이 자리 잡고 있다. 원스톱으로 공원과 옛집과 문학관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동선이다. 관람의 편의성과 규모의 측면보다 원주가 더욱 주목되는 것은 작가와 작품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다.

사실 지방의 문학관을 찾아가 보면 몇몇 문학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먼지 쌓인 쇠락한 옛터에 작가 혼자 외로이 살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대부분이다. 장이 서듯이 일 년에 한 번 축제 기간이 되어야 먼지가 닦이고 꽃이 심어진다. 하지만 원주의 경우는 처음 공원이 조성되었을 당시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토지』 전문가 그룹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토지학교’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토지학교’를 졸업한 시민들 중 일부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토지학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토지 한국사 학교’, ‘박경리 문장전’, ‘박경리 문학 낭독 공연’¹¹⁾ 등이 열린다. 또한 ‘시

10) 원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인물로 고려시대 승려 원공국사(930-1018)부터 조선 중기의 문인 이달(1539-1612)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관련된 콘텐츠의 개발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11) ‘박경리 소설 낭독 공연 대회’는 박경리 소설 중 맘에 드는 것을 선별하여 팀을 구성해서 낭독하는 장면을 파일로 보내면 전문가가 심사(예선)하여 통과한 4팀을 선정하여 ‘소설 토지의 날’(매년 8월 15일) 본선을 진행하는 행사이다. ‘박경리’라는 브랜드

낭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이어서 '박경리 시 낭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박경리 작품 UCC 홍보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홍보대사로 선발하기도 한다.¹²⁾



통영이나 하동 등의 다른 공간과 비교할 때 원주 박경리문학공원이 갖는 가장 큰 차별점은 전문 인력의 배치를 통해 두드러진다. 공원에서 진행되는 연중 수십 건이 넘는 각종 인문 강좌와 교양 강좌, 북콘서트와 아카데미, 전시와 이벤트는 관에서 지시하고 현장에서 수행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박경리문학공원은 문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상근 배치되어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매년 반복되는 도돌이표가 아닌 새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진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인력 풀(pool)을 활용한 운영이 가능한 것도 결국 전문 인력의 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초창기 문학관이 단순히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기능 중심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시 공간은 외부인이 한 번 들렀다 가는 곳에 머물 뿐이지만,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다면 문학관의 핵심은 이제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가'¹³⁾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

의 흡인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원주 지역을 벗어난 독자들의 참여도 가능한 행사이다. 이 외에도 '박경리문학공원에서'는 '시조백일장', '박경리 시 낭송대회', '대학생 박경리 작품 홍보 대회' 등을 전국 단위로 개최하고 있다.

12) 박경리문학공원 홈페이지(<http://tojipark.wonju.go.kr> 최종 검색일 2018.10.2.)

13) 박경리는 자신이 평생 곁에 두고 봤던 국어사전과 재봉틀, 통영 나비장을 가장 소중

리기 위해 작가와 작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의 배치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다.¹⁴⁾

‘제1세대 문학관’에서 ‘제2세대 문학관’으로의 전환,¹⁵⁾ 즉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중심이 아닌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문학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이는 곧 문학관 개념의 확대/확장/분화를 의미한다. 즉 문학관은 더 이상 작가와 작품 관련 자료를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문학과 관련된 행사나 프로그램 나아가 문학 외 다른 장르의 문화까지도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주의 ‘박경리문학공원’을 중심으로 한 문학관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사례는 하나의 모범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세 가지 보물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원주, 하동, 통영 세 공간 모두 이 세 가지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사실 관람객들은 전시된 유품이 작가가 사용하던 실물인지 복제품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지자체로서는 실물을 전시하기를 원한다. 원래 원주에 있던 위 세 가지 유품 중 나비장을 제외한 두 가지는 2016년 하동에 ‘박경리문학관’이 개관하면서 옮겨갔다. 향후 하동과 원주는 작가의 유품을 순회 전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4) 문학관이나 기념관에서 관람객들이 마주칠 수 있는 인력은 건물 관리인이나 기념품이나 지역 특산물을 파는 점원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리 관람 예약을 하는 경우 문화해설사가 배정되기도 한다. 인천에 소재한 ‘한국근대문학관의 관장과 팀장은 지방 관료나 공무원이 아닌 문학 관련 전공자로 모두 근대문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다. 안내와 해설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문학 전공자들로 배치되어 있다. “전국 최초의 공공종합문학관”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은 다양한 인문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희귀본 등 자료의 수집·보존·정리,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의 운영, 출판 및 유관기관 간의 교류 협력 등 ‘제2세대 문학관’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한국근대문학관(<http://lit.ifac.or.kr> 최종 검색일 2018.10.2.)

15) 윤화로·김점석·프랑수아즈 질리앙-카자노바, 『문학관 설립을 위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술』 12, 2004 참조.

4. OSMU, 소설이 집을 짓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는 『토지』의 출발이자 대단원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현재 평사리에는 2004년 SBS에서 방영했던 『토지』의 드라마 세트장을 보존하고 수정 보완하여 ‘토지마을’을 조성하였다. 토지 마을 안에는 최참판댁과 주요 인물들의 가옥이 명패를 달고 조성되어 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소설 『토지』로 인해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악양 들판과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자리 잡은 최참판댁에는 ‘최참판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최참판이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관람객들과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 하지만 방문객들은 최참판댁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매표소에서 어린이 1000원, 어른 2000원의 입장권을 끊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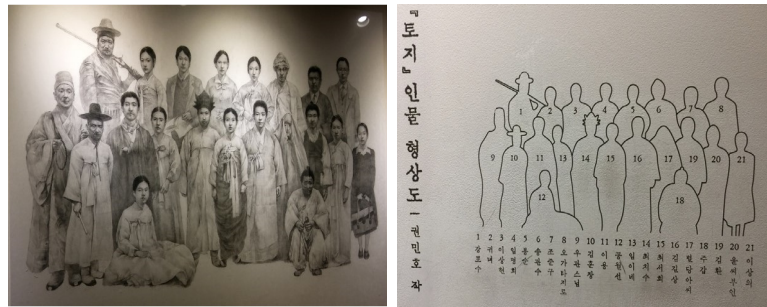
최참판댁 길 건너에 ‘박경리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다. ‘박경리문학관’은 2016년 ‘토지 마을’ 내에 있던 농기구박물관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다. 작가의 고향인 통영의 ‘박경리기념관’이 작가를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고, 원주의 ‘박경리문학공원’이 작가가 생활하고 집필을 하였던 공간이었다면, 이곳 하동은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관련 공간의 간판도 박경리 ‘문학관’이다.¹⁶⁾

‘박경리문학관’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물과 관련 콘텐츠가 작가 박경리와 『토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은 앞서 통영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르게 디자인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박경리문학관’은 지방의 입김을

16) 사실 하동은 오랫동안 저작권 문제로 ‘박경리’와 ‘토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박경리문학관’ 이전에는 ‘토지 마을’에 ‘평사리문학관’이 있었다. 지금은 ‘평사리문학관’ 자리에 ‘문학&생명’이란 간판을 달고 소형 강의실과 세미나실을 운영하고 있다.

배제한 채 건축, 디자인, 콘텐츠, 타이포그래피, 문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낳은 결과물이다.

‘박경리문학관’에는 원주와 통영에는 없는 『토지』와 관련한 콘텐츠가 전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 인물형상도’와 ‘토지 인물지도’이다.



‘토지인물형상도’는 근대 조선인들의 형상과 작가 박경리가 작품 속에 서술한 인물묘사를 참조하여 대표적인 인물 20명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어떤 독자는 그림만 보더라도 대개 등장인물이 누군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독자의 상상과 화가의 인물 해석이 달라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인물들에게 명찰을 달아줄 수 없으니 ‘인물형상도’ 아래에는 각각의 인물이 누구인지 명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전시물은 ‘토지인물지도’이다. 지금까지 독자들이 단행본의 부록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인물 가계도는 모두 ‘트리(tree)’ 형식이었다.

이처럼 ‘박경리문학관’은 작품과 관련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시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세대 문학관의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로지 전시관의 기능에 충실한 셈이다. 공간의 협소함을 극복할 아이디어와 기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때 신지식인으로 불렸던 어느 코미디언의 말처럼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한편 ‘문학관’의 넓은 앞마당에는 원주의 ‘토지문화관’과 통영의 ‘박경리기념관’ 앞에 있는 작가의 인물상과 동일한 모습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같은 모습의 동상이 2018년 6월 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에도 세워졌다. 캠퍼스 내에 있는 작가의 동상에는 박경리의 시 〈삶〉의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라는 마지막 시구가 한글과 러시아어로 새겨져 있다. 이 인물상은 한국에서 제작하였고 기단부와 좌대는 러시아 현지에서 제작되었다.

러시아 박경리 작가 동상 건립 인연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러시아 작가동맹’ 측에서 ‘한러대화(KRD)’ 사무국에 러시아 국민 시인인 푸시킨의 동상을 서울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러대화 측은 한국과 러시아의 우호적 협력 강화와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해 이를 추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 건립했다. 이후 상호 호혜적 원칙에 의거해 한국을 대표하는 박경리 작가의 동상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교정에 건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박경리 작가의 동상 건립에 대해 토지문화재단 김영주 이사장은 “러시아-원주-하동-통영, 네 곳에 같은 형상을 갖춘 박경리 작가의 동상을 세움으로써 하나의 문화적 벨트가 형성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¹⁹⁾

18) 최유찬, 『토지를 읽는다』, 숲, 1996, 490쪽.

19) 『러시아 상트대에 박경리 작가 동상 섰다』, 『한겨레』, 2018.6.20.

국경을 넘어서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하여 하나의 문화적 벨트가 형성되리란 희망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또한 그것의 실행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박경리를 통해 가능하리란 사실에 토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문학 관련 공간을 답사하거나 기념물을 찾을 때는 그 공간이 갖는 의미와 그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기념물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맛의 맥도날드 햄버거를 맛보기 위해 하동과 통영과 러시아에 가지 않는다. 이번 박경리 작가의 동상이 세워진 동양학부 건물은 고종황제 말기인 1897년부터 1917년까지 한국인 통역관 김병옥이 유럽권 최초로 한국어 강의를 했던 곳으로 우호적 한러관계가 시작된 유서 깊은 장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 곳에 박경리가 간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국민 시인인 푸시킨과의 맞트레이드 방식이었으니 동상의 좌대에 박경리의 시구를 기록한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동의 박경리문학관과 통영의 박경리기념관, 원주의 토지문화관에 있는 박경리 동상의 인물상은 똑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좌대에 새겨진 문구는 하동과 통영이 동일하고, 원주는 다른 문구가 새겨져 있다. 원주 '토지문화관'의 좌대에는 박경리 선생의 에세이에서 가져온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작가들의 집필실이 있는 창작 공간에 어울리는 문구가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하동과 통영의 좌대에 새겨진 문구는 작가의 유고시집에서 뽑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흥가분하다"라는 동일한 시구가 새겨져 있다. 작가의 사후 유고시집이 발간되고, 추념사업의 일환으로 동상이 건립되었을 때의 맥락에서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흥가분하다."라는 시구는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동상의 제작이 세웠다가 철거하는 일회

성 이벤트가 아니라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다.

통영 미륵산 기슭 작가의 묘소가 있는 추모공원 안 조형물에 유고시집의 일절을 뽑아 새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동 '박경리문학관'의 경우, 평사리가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고, 시인보다는 역사소설 『토지』의 작가로서 박경리를 떠올린다면 유고시집의 일절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동과 통영, 원주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데 같은 형상의 동상에 동일한 문구가 새겨진 좌단은 공간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선택은 아니다.



원주 '박경리문학공원' 내 작가의 집필실이 있는 옛집 앞 뜰에도 작가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작가의 것으로는 최초로 만들어진 이 동상은 원주 토지문화관과 하동, 통영,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동상과 다른 모습이다. '공원'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작가가 실제 뒷밭을 가꾸고 오랫동안 생활하였던 옛집이라는 의미를 공간의 형상에 담고 있다. 바위에 앉아 있는 작가의 동상은 실제 인물의 150% 정도 크기로 만들어졌다. 앉아 있는 작가의 넓은 치마폭에는 관람객들이 앉아 작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작가의 동상 옆에는 작가가 생전에 키우던 고양이의 형상이 있고 호미가 놓여 있다. 작가가 앉아 있는 바위에는 원고지가 음각되어 있으며 작가의 글이 새겨져 있다.

문학을 원소스(One Source)로 한 역사 문화공간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문학작품과 그것을 생산한 작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학관을 짓는 일은 비단 담당 지자체나 건축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문학에 향유하는 독자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문학관은 원소스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을 거점으로 문학연구와 교육, 전시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학과 관련 콘텐츠의 새로운 향유방식과 소비 형태에도 대응해야 할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Pak Kyongni’가 ‘Bak Gyeongri’가 된 시연

작가 박경리가 고향 통영을 떠나 작품 활동을 했던 공간이 서울 정릉에 남아 있다.²⁰⁾ 초기 단편에는 전쟁미망인이 고향을 떠나 고단한 서울 생활을 하던 작가의 자전적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서울시와 성북구도 이곳이 작가 박경리의 집필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수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찾아오는 독자들을 위해 전봇대 높은 곳에 친절하게 이정표를 달아 놓았다. 박경리 가옥(Bak gyeongri's House)!

20) 행정구역상 주소는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29가길 11호이다. 빨간 벽돌로 지은 단층 집이다. 유족의 전언에 의하면 작가가 직접 인부를 들여 당시의 ‘가옥’을 적극적으로 개보수하였다고 한다. 현관 앞마당의 박음돌과 텃밭의 흔적도 아직 그대로이다. 현재는 작가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 살고 있으며, 이웃하여 ‘산1 경로당’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한글 표기 아래 영어와 일본어·중국어·한자(漢字)가 병기되어 있는데, 박경리 가옥의 영문 표기는 족보에도 없는 ‘Bak gyeongri’s House’로 되어있다. 생전에 작가는 자신의 필명에 대한 영문 표기를 ‘Pak kyongni’로 적었다. 사소해 보이는 오류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디테일은 정책 집행의 안이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탁상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 문화의 품격을 결정짓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 연보만 한 번 찾아봤더라도, 유족 혹은 전문가에게 전화 한 통만 했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오류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태도의 문제이다. 일반인이 많이 쓰는 ‘Park’를 쓰지 않고 굳이 ‘Bak’을 쓴 연유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원주 박경리문학공원 홈페이지에 가면 공원 내에 있는 전시관의 공식 명칭이 ‘박경리 문학의 집’으로 되어있다. 이곳의 영문 표기는 공식적으로 ‘Pak kyongni House’이다. 작가 사후 2010년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박경리 문학의 집’은 당시 건축가와 디자이너, 문학 관련 전문가 집단이 투입되어 완성한 것이다. 예산의 부족과 흩어져 있는 유품들의 수집 등에 아쉬움이 없지 않았지만, 각자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서울의 경우처럼 ‘Bak gyeongri’s House’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하지 않았다. 이후 정릉 가옥에 대한 이정표가 생긴 것인데, 만약 서울에서

원주 박경리 문학의 집(Pak kyongni House)의 존재를 알았다더라면, 역할과 의미가 전혀 다른 공간에다가 똑같이 'House'란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알고서도 지자체 간의 아무런 조율이나 고민 없이 무심히 그대로 진행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겠다. 그래도 서울의 경우 다행스러운 점은 이정표와 남의 집 담벼락에 독자들이 그려 놓은 작가의 초상화 정도밖에는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과 원주, 하동, 통영에 박경리 『토지』와 관련한 각각의 특징적인 문학공간이 있다. 어떤 경우는 동어반복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거나 명백한 오류가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곳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을 서로 조율하고 교통 정리할 만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주기가 되었다.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각의 문학공간 중 가장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름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원주의 박경리문학공원이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동과 통영에도 지역의 문인들과 권역의 전문 연구자 풀(pool)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문학 공간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도 절실하다. 전문 인력의 부재는 결국 문학관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학관은 보기 좋게 박제된 관상물(觀賞物)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생물이다. 문학 작품의 재현, 작가정신의 계승, 강좌의 개발, 방문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전시 기획과 체험 활동 등이 연중 돌아가야 한다. 해당 문학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심도 있는 문학연구와 합당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 자격 규

정과 교육제도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박물관 운영에는 담당 인력의 인건비, 시설 관리비, 프로그램 진행비 등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몇몇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양질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단지 비용의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 문화 공간을 기획하고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만은 아니다. 그것은 건축과 디자인과 콘텐츠를 담당하고 기획하는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자체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수, 『문화산업으로서의 문학산업』, 『현대문학이론연구』 25, 2005, 5-24쪽.
- 김진영,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장소성 프로세스를 적용한 문학지리학 연구—소설 『토지』 속 평사리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55, 2011, 1-16쪽.
-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박경리문학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6, 2013, 31-54쪽.
- 문화관광부 편, 『유명 예술가 유치에 따른 가치평가 분석』, 문화관광부, 2006.
- 박기수, 『한국문화콘텐츠학의 현황과 전망—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6, 2006, 7-31쪽.
- 박승희, 『로컬리티 문화 표상과 지역 문학관의 재구성』, 『한민족어문학』 72, 2016, 409-433쪽.
- 송요셉, 『OSMU의 개념적 모델 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인문콘텐츠』 9, 2007, 325-349쪽.
- 오태영, 『문학관의 공간 조직화와 수행적 신체』, 『한국문학과 예술』 20, 2016, 145-173쪽.
- 윤학로 · 김점석 · 프랑수아즈 질리앙-카자노바, 『문학관 설립을 위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술』 12, 2004, 345-368쪽.
- 이명호 · 오삼균 · 도슬기, 『라키비움(Larchiveum) 관점에서 본 국내 문학관의 운영 실태와 과제—국내 문학관의 기능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 2015, 139-159쪽.
- 이중엽,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6, 2003, 83-98쪽.
- 이 투 푸안, 『토포필리아』, 이옥진 역, 2011.
- 정경운, 『한국문화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연구—국내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5, 2005, 25-47쪽.
- 조운아, 『공간의 성격과 공간 구성』, 최유찬 외 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 찰스 랜드리, 『창조도시』, 임상오 역, 도서출판 해남, 2005.
- 최유찬, 『토지를 읽는다』, 솔, 1996.
- 함태영, 『문학관의 현황 및 인천문화재단이 만드는 한국근대문학관』, 『민족문화사연구』 47, 2011, 326-352쪽.

『러시아 상트대에 박경리 작가 동상 섰다』, 『한겨레』, 2018.6.20.

〈『토지』 완간 10주년 기념 대담〉, 마산 MBC, 2004.

박경리기념관(<http://pkn.tongyeong.go.kr>)

박경리문학공원(<http://tojipark.wonju.go.kr>)

통영관광포탈(<http://www.utour.go.kr>)

한국근대문학관(<http://lit.ifac.or.kr>)

한국문학관협회(<http://www.munhakwan.com>)

Abstract

A Study on How to Vitalize Literature Museums/Literary Spaces and the Cases
of Contents Planning
— Focusing on Pak Kyongni's *Toji*

Lee, Seung-Yun(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everal literature museums/literary spaces related to the writer Pak Kyongni and her novel *Toji*, and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each of them.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literature are naturally altering the public's culture-consuming patterns as well as, ultimately,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of literature. The creation of various spaces related to literature, too, is one of the concrete examples of these changes.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investigate contents planning and program operation in literature museums/literary spaces and to also explore methods of vitalizing literature museums using this as its basis.

We can find distinguishing literary spaces dealing with Pak Kyongni and her novel *Toji* in Seoul, Wonju, Hadong, and Tongyeong. Some are operating their programs successfully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but some are showing a tendency to repeat the same words and obvious errors. Literature museums should not behave like stationary objects to be seen like a stuffed bird but rather as living entities that should actively cope with the outer environment. Literature museums should play roles as a medium that allows people to be closer to the original source. Using literature museums as the base, we need to conduct research on literature and develop a variety of participating programs such as training sessions and exhibitions. These museums should be allowed to lead activities so that they can evolve as complex cultural spaces.

When literature museums are located sporadically just like those for writer Pak Kyongni and her novel *Toji*, it is necessary to found and operate an organ or committee that can function as a control tower that may oversee their roles. Also,

it is urgently needed to secure experts that can operate and manage the literary spaces. The absence of experts will lead to a lack of expertise in literature museums after all. Only when an expert is secured that is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the literature museums, will it be possible to carry out the reproduction of literary works, succession of the author's artistic spirit, development of lectures, or the planning of exhibitions and experiential activities to attract and intrigue visitors.

Of course, to realize all these things favorably, it is needed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However, it is not the local government's exclusive duty to plan and build literature museums/literary spaces and implement the policy. Meaningful results can be produced when there i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expert groups specializing in the planning of architecture, design, and contents.

(Keywords: Pak kyongni, *Toji*, literature museums/literary spaces, contents, complex cultural space, local government, communication & cooperation)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19일

논문심사일 : 2018년 11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3일